

“환영” “반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추진에...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면서 지역 중소기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2022년 10월 27일자 9면)와 관련, 정부가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연장된다는 소식에 지역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제도의 향구화를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관행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다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는데, 소규모

30인 미만 기업 2024년까지...지역 중기 “제도 향구화” 노동계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관행으로 회귀” 반발

영세업체들의 구인난을 고려해 이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는 약 3만여개사로 추정된다.

이날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주의 19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업체는 1만 902개사, 전남은 1만 6121개사 등 2만 7023개사다. 20인 이상 49인 미만 제조기업체도 광주 424개사, 전남 667개사 등 1091개사다.

지역 산업계의 특성상 자동차와 가전 등 원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3차, 4차, 하청업체들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일몰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계의 타격이 예상돼 왔다.

여기에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추진 중인 광주지

역 IT업계 역시 프로그래밍과 연구개발(R&D) 업무 특성상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지키기 힘든 데다, 개발자 인력 수급이 어려워 고증을 호소할 바 있다.

하지만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의 2년 연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고, 일몰이 도래하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지역 중소기업계의 현실이다”며 “극심한 경기침체와 인력난으로 쪼맨 위기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연장근로제가

꼭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계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와 달리 노동계는 정부의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추진 방침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근로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관행’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부분 산재사고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30인 미만 기업에 추가연장근로를 연장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보장, 건강권 문제를 내팽겨치고 사용자에게 최장 주52시간제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월급 보릿고개’

직장인 10명 중 7명 16일만에 잔고 바닥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다음 월급을 받기 전 현금이나 바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 대다수가 매달 ‘월급 보릿고개’를 겪는다는 얘기다.

1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322명을 대상으로 ‘월급 소진 기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6%는 월급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잔고가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월급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월급을 받은 뒤 돈을 모두 써버리는 평균 기간은 평균 16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급 보릿고개’를 겪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월세·관리비·통신료 등 고정 지출비용이 크기 때문’(53.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내 월급이 너무 적어서’(51.1%)가 뒤를 이었고, 이외 ‘충동소비 등 내 씀씀이가 커서’(28.3%), ‘갚아야 할 대출금이 많아서’(25.7%) 등 순이었다.

월급을 받아마자 급여통장에서 가장 먼저 돈을 빼가는 대상은 ‘카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참가자의 절반 수진인 46.0%는 ‘급여통장 출금내역에 카드값 인출이 가장 먼저 찍힌다’고 답했다. 카드사 다음으로 ‘은행 및 대출기관’(17.3%), ‘집주인·월세’(16.9%)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실력 발휘”

창립 53주년 기념식 ‘이태원 참사’ 고려 축소 진행...이재용 회장 불참

삼성전자가 1일 창립 53주년을 맞았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을 고려해 행사는 간소하고 엄중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지난달 27일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맞이한 창립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부친 이근희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의 뒤를 이을 ‘뉴삼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달리, 이 회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메시지도 없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한중희 대표이사 부회장,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을 고

려해 애초 계획했던 축하공연 등은 취소하고 행사도 축소했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목적으로 기념식을 시작해 간소하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중희 부회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실력이 발휘된다”며 “삼성전자의 저력과 도전 의지를 바탕으로 또 한 번 새롭게 변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한계 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한 신성장”과 “고객 중심의 핵심 경쟁력 재정의”, “지속가능 경영의 적극적인 실천”, “소통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 영역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메타버스 등에서 미래 라

이프스타일을 바꿀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 성장 모멘텀을 확대해 나가자”며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 혁신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자”고 말했다. “선구적인 준비 정신과 문화가 삼성전자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날 창립 53주년 기념식에 이재용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창립 50주년 당시 이 회장은 이례적으로 “도전과 기술, 상생을 통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만들자”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50주년 때를 빼놓고는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하거나, 별도의 메시지를 낸 적은 없다.

한편 삼성전자는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공업(주)’으로 출범했지만, 1988년 11월 삼성전자계통신을 합병한 이후 창립기념일을 11월 1일로 바꿨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돕기 위해 최근 순천시청에서 4억8000만원 상당 입장권을 사전 구매하기 위한 약정을 맺었다. 광주은행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원은행을 맡은 뒤 ‘2023 박람회’도 주거래은행이자 후원사로 활동하며 정원 안에 있는 ‘광주은행 정원’을 세단정했다. <광주은행 제공>

효성첨단소재·효성티앤씨 ‘ESG 경영’ 성과

MSCI ESG 평가, 1단계 상승한 ‘BBB등급’ 획득

효성첨단소재와 효성티앤씨가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BBB등급’을 획득했다.

1일 효성에 따르면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과 관리를 위해 개발된 MSCI ESG 평가(MSCI ESG Ratings)는 글로벌 주요 투자 회사들의 투자 벤치마크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ESG 평가 지수다.

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에 대상으로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 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동종업계 대비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탄소 관리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첫 평가에서 ‘B등급’, 2020년에는 ‘BB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 2021년 평가에서 ‘BBB등급’을 받아 매년 등급이 상승하고 있다.

효성티앤씨도 업계를 선도하는 탄소 저감 전략과 이의 이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19년과 2020년의 ‘BB등급’에 이어 2021년 평가에서 ‘BBB등급’을 획득했다. 두 회사가 받은 ‘BBB등급’은 동종업계인 글로벌 원자재 화학사 중에서 상위권 수준이다.

효성그룹 ESG 관계자는 ““그린경영 Vision 2030”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ESG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 ESG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삼성전자, 2개월만에 ‘6만전자’ 회복

기관·외국인 997억 순매수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35.22(+41.61)
▲ 코스닥	700.05(+4.72)
↓ 금리(국고채 3년)	4.068(-0.117)
↓ 환율(USD)	1417.20(-7.10)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약 2개월 만에 ‘6만전자’를 회복했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01% 오른 6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581억원, 외국인이 41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062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증가 기준 6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8월 26일(6만원) 이후 처음이다. 9월 말 5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가 주가는 10월 들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인위적 감산 없이 설비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내년 이후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전장보다 41.61포인트(1.81%) 오른 2335.22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944억원을, 기관은 1940억원을 동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지난 10월 20일과 28일, 2거래일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일에 모두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11월의 첫날인 이날에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개인은 7232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이 실현에 나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72포인트(0.68%) 오른 700.05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472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79억원, 기관은 13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에너지공대, 빅스포2022 연계 국제 학술행사

한전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오늘 개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2일 개막하는 한전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 2022)’와 연계해 국제 학술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2022 켄텍 국제 심포지엄” 주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 혁신’이다.

행사는 에너지공대가 주최하고 전남도·나주시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창업과 성장과 혁신 플랫폼으로서 산·학·연·직적지의 발전 가능성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유은덕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정승일 한전 사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또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데이비드 M. 하트 교수의 ‘에너지 전환시대의 클러스터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미국 NFU 경영대학원 마크 H. 마이어 석좌교수의 ‘창업과 기업가정신: 클러스터를 성장판으로’, 태극 PMUC 선임자문위원의 ‘창업기업의 성장: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 전

략’이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과 토론이 이어진다.

윤 총장은 “청정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에너지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에너지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다”며 “교육과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 창업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과 성장의 혁신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차원에서 2~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빅스포 2022 행사를 축소 개최할 방침이다.

당초 예정됐던 연회와 희망·사랑·나눔 콘서트, 지역 특산물 장터, 거리 공연 등의 프로그램은 취소된다.

빅스포는 전력·에너지 신기술 트렌드와 전략을 조망하는 국제 종합 박람회로, 이번에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주제로 글로벌 에너지 정책 트렌드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